特殊圖書館大會 發表議題

# 特殊圖書館의 資料 整理問題

## ——KDC와 KCR을 中心으로——

發表者 李 丙 洙
(國會圖書館)

### 特殊圖書館의 두가지 意味

特殊圖書館이라고 말할 때 두가지 境遇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設立機關에 따라서 機械的으로 區分한 것으로 公共·大學·學校圖書館과 區別되는 意味로서의 特殊圖書館이요 다른 하나는 藏書構成의 特殊性에 따라서 規定지어 질 수 있는 特殊圖書館이다. 前者의 區別方法은 단지 形式的인 便法에 不過하다. 그러나 蒐集된 藏書群의 特性에 依해서 區分하는 경우는 반드시 設立機關의 特殊性에 따라서 命名한 特殊圖書館이란 意味와는 달리 使用되어야 한다. 例를 들면 學校圖書館中의 農業·工業·商業學校의 圖書館, 大學圖書館中의 農科·工科·商科·音樂大學等等의 圖書館은 藏書群의 性質로 보아서는 特殊한 것이니 資料의 整理問題에 있어서도 다 같은 方法으로 論議되어야 한다.

또한 藏書群의 特殊性 뿐이 아니라 特殊資料인 크리핑, 寫眞, 地圖, 地球儀, 地圖帖, 音樂資料, 마이크로, 필림 寫眞資料, 鄕土出品, 스라이드, 필림等等의 圖書以外의 資料가 특별히 많은 圖書館도 있을 것이니 그런 것도 一般圖書와는 다른 方法으로 管理하고 整理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以上에서 列擧한 特殊圖書館의 個個가 지니는 特殊한 圖書나 特殊形式의 資料의 個別整理問題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藏書構成의 特殊性을 지닌 圖書館에서 韓國十進分類法(KDC)과 韓國目錄規則(KCR)을 選定하는 問題와 그것의 適用問題를 말해 보려고 한다.

### 使用現況과 分類表의 特徵

韓國十進分類法이 3個月餘前에 館界의 歡迎을 받으며 出生하기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大槪 6種의 分類表가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即 朴奉石 編 朝鮮十進分類表(KDCP), DDC, 韓銀圖書分類法(HUDC), 國研十進分類法(國研), 國研圖書整理規定(國整)外에 日本十進分類法이다. 이 가운데 HUDC, 國研, 國整은 自己 圖書館만을 爲한 特殊分類表이고 남어지는 一般圖書館의 分類表인데 그中 KDCP만이 本邦唯一의 것이고 DDC나 NDC는 남의 나라 것이다. 그런데 KDCP는 1948年 初版以後 近 20個星霜을 한번의 改正을 보지 못하여 進步하는 學問에 발을 마추지 못하

고 더우기 助記性의 固定, 記號의 4數字(階位)限定, 項目의 不足等의 諸缺點이 있어 DDC가 普及되면서 KDCP의 使用率은 固定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使用館 조차도 DDC로 分類表變更을 한 例가 許多했다. 그러나 DDC 亦是 歐美本位로 되었기 때문에 東洋關係를 展開하여 써야 하였고 그러한 展開를 하자면 많은 豫備知識이 必要하였다. NDC는 東洋사람의 口味에 맞기는 하나 亦是 日本을 爲主로 한 것이요 韓國의 適合한 分類表는 아니다. 그러나 以上의 分類表中에서 第一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DDC와 KDCP이다. 그것의 統計를 보면

| 學校別 | 館數 | DDC 使用館數 | KDCP 使用館數 |
|---|---|---|---|
| 高等學校 | 401 | 224(56%) | 40(1.8%) |
| 中學校 | 151 | 82(54.3%) | 10(6.7%) |
| 國民學校 | 398 | 234(58.7%) | 37(9.2%) |
| 計 | 950 | 540 | 87 |

(장서 500권 以上되는 全國의 學校圖書館)

위의 統計는 1964年3月의 韓國圖書館協會의 〈韓國의 圖書館〉을 根據로 해서 集計한 것이다.

이 統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950館中 323만이 아직 分類表를 選定치 않았고 남어지 627館은 分類表를 選定하고 있으며 그中 KDCP를 使用한 것은 87館에 不過한데 남어지 540館은 모두 DDC를 使用하고 있다.

또 1963年3月의 圖協의 實態調査를 根據로 해서 낸 統計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 館種別 | DDC使用館 | KDCP使用館 |
|---|---|---|
| 公共圖書館 | 48% | 41% |
| 大學圖書館 | 87% | 13% |
| 特殊圖書館 | 41% | 11% |

以上의 表에서도 公共圖書館이 41%의 比率로 KDCP를 使用한 것을 除外하고는 DDC를 越等하게 많이 使用하고 있다. 이 統計들의 仔細한 것은 「國會圖書館報」創刊號 P.98을 참고하기 바란다.

分類表中 非十進法과 十進法의 特性과 그 長短點에 對해서 여러분도 다 잘 아실 줄 믿고 說明을 省略한다.

### 分類表의 變更

위의 統計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現在 우리나라의 各圖書館의 半數以上이 分類表를 이미 選定하여 어떠한 形態로 든지 整理를 하였고 앞으로도 하여 갈 것이다.

이러한 形便에 韓國十進分類法이 나왔다. 全部가 아니지만 어떤 圖書館에서는 KDC를 如何히 맞아야 할 것인가 躊躇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새것이니 바꾸어야 하지 안나? 하고 疑心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나는 먼저 아무리 좋은 分類表가 나오드래도 自己 圖書館에서 使用하고 있는 分類表는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圖書館의 藏書構成은 마치 人間의 大腦에 知識이 蓄積되면 나쁘다 하여 허트러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드시 어떤 分類表에 依해서 構成되는 藏書의 組織도 함부로 허트러버리고 다른 分類表에 따라서 다시 分類한다는 것은 그 時間的 經濟的인 浪費는 勿論이요 圖書館의 本元的 業務인 奉仕에 一時的인 停頓狀態를 招來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無計劃하고 새로운 分類表만 좇아 分類表를 變更하는 경우 現在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現狀처럼 同一한 圖書館의 藏書의 分類體系가 二重·三重으로 되

어도 그것을 올바로 잡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몇몇 大學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에서는 解放後에 KDCP(朝鮮十進分類表)를 採用하였고 韓銀圖書分類法을 選定하여 使用하였었는데 DDC에로 分類表를 變更한 結果 過去에 KDCP나 韓銀分類法에 依해서 分類했던 圖書가 몇 萬卷이 그대로 남아 있어 圖書館의 藏書가 日帝時의 分類表에 依한 것을 보태면 二·三重의 分類體系로 되어 있어 同一著者의 同一한 著作이 分類番號가 各各 달라 閱覽者나 圖書館職員에 큰 不便을 주고 있는 形便이다.

이러한 事實들을 살펴 볼때 圖書館에서 分類表의 變更은 함부로 할 것이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하리라 믿는다. 새 分類表가 나왔다고 마음뜬 봄아가씨가 流行을 따라 새옷을 갈아 입듯 손쉽게 알아 그것으로 變更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일은 自己 圖書館에서 使用하고 있는 分類表가 到底히 變更치 않으면 앞으로 크게 困難할 것이 認定되고 變更할수 있는 經濟的 人的 準備가 서고 短時日內에 그 作業을 끝마칠 수 있으면 當然히 變更 作業에 着手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旣成圖書館으로서는 韓國十進分類法을 맞이 함에 있어서는 以上에서 말한 두가지點을 考慮해야 한다. 藏書數가 많은 圖書館으로서 全般的으로 短時日에 變更할 計劃이 없으면 KDCP든 DDC든 그대로 使用하여야 한다. KDCP나 DDC를 使用하고 있는 圖書館은 구태어 韓國十進分類法으로 變更하려 할 것 없이 그것을 더욱 自己館의 特殊性에 알맞게 展開變改하고 나가면 된다.

그러나 新設圖書館이나 앞으로 分類表를 選定할 圖書館은 特殊한 事情이 없는 限 韓國十進分類法을 選定하면 된다. 그러나 藏書의 特殊性이나 圖書量을 考慮하여 定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韓國十進分類法에 對한 評價가 定해지고 이것이 많이 採擇되고 好評을 받으면 自然히 標準分類表로 認定될 수 있을 것이다.

### 韓國十進分類法의 特性

그러면 韓國十進分類法은 以前의 朝鮮十進分類表나 Dewey十進分類法과 日本十進分類法보다도 어떠한 點이 便利하게 되었는가 하는 問題를 살펴봄으로써만 그것의 選定과 適用問題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嚴格한 意味에서의 分類表의 評價는 各圖書館에서 實際로 쓰고 그 結果의 長短點을 發見하여야만 眞正한 評價가 될 것이다. 이러니 아직 使用하여 본 일도 없는 分類表를 評價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요 분에 넘는 일로 생각한다. 더우기 産後 3個月인 어린아이 같은 청초한 것을 미리 論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칠세라 조심스러운 마음도 禁할 수 없다. 그러나 外貌를 보고 마음을 살피고 察色을 하여 사람의 運命을 점치려하는 觀相쟁이처럼 分類表의 外貌만을 보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닌 長點을 大略 찾아 보면 韓國十進分類法은

1. 地域的 特性을 考慮했다.

(가) 表 全體가 韓國本位요 東洋本位로 만들어 졌다.

그 重要한 部門을 보면 總類의 030 韓國百科事典·哲學의 151 韓國哲學·152

中國哲學·153 日本哲學, 宗教의 220 佛敎·250 天道敎·259 檀君敎 大宗敎, 社會科學의 360 法學, 藝術의 640 書藝, 音樂의 679 國樂, 語學의 710 韓國語·720 中國語·430 日本語, 文學의 810 韓國文學·820 中國文學 歷史의 910 아시아·911 韓國·912 中國·913 日本等이다.

위에 든 部門은 旣往의 分類表를 使用하며 恒常 아쉬어하고 不滿을 품었던 것인데 韓國十進分類法에서는 그러한 아쉬움과 不滿을 없애 준다. 特히 東洋哲學·文學·歷史는 地域的 特性을 살리기 爲한 많은 努力을 하였다.

2. 十進分類法의 一般的 原理와 方法을 適用하였다.

(가) 純粹記號(pure notation)法을 適用하였다.

(나) 十進式展開를 하였다. 區分肢를 1에서 9까지 數字로 表示하여 區分하고 區分할 수 없는 것 即 9區分中의 어느 區分에도 屬하지 않으나 그 어느 것이 든지를 모두 包含하는 區分肢의 總和에 對해서는 <0>을 붙여 <10>의 單位로 만들었다.

(다) 助記性을 充分히 考慮하고 活用하였다. ※「圖協月報」 9月號를 參照할것.

3. 豊富한 註의 設定

(가) 主要한 項目마다에 註를 달아 分類作業의 指示와 確定을 期하도록 하였다.

4. 類·細目의 合理的 配列

(가) 主類配列을 合理的이며 分類의 實際에 맞게 하려 하였다.

分類表의 主題의 區分과 排列은 大槪 形而上學에서 形而下學으로 排列하는 경우와 그 反對로 形而下學에서 形而上學으로 排列하는 順序다. 이것은 20世紀 初葉의 自然科學 崇尙을 하는 學界의 傾向을 反響한 것으로 그 當時에 나온 分類表는 大槪 自然科學을 上位에 놓고 있다.

※「國會圖書館報」第3號를 參照할것.

韓國十進分類法은 精神科學을 上位에 두고 있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KDC의 主類排列은 DDC의 類排列의 큰 缺點으로 指目되고 있는 400臺의 語學을 800 文學과 接近시키기 위해서 한자리씩 왼쪽으로 移轉하였고 DDC의 應用科學이 韓國十進分類法에서는 技術科學으로 되었다.

그러니 結果的으로는 主類排列은 語學을 700으로 옮겨진 事實을 除外하고는 DDC의 主類配列 順序와 같으니 DDC의 改善으로 볼 수 있다.

(나) 綱·目等의 區分 및 配列을 合理的으로 實際的 利用에 便宜케 하였다.

例를 들면 經濟學(320) 아래에 經營管理(325) 및 商業(326.1)等을 配列한 것 地域的 特性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韓國에 關한 部門의 區分이나 配列에 있어 優位를 준 點이다.

5. 相關索引의 設置

(가) 分類項目과 主要한 註를 正確하게 찾을 수 있게 相關索引을 設定하였다.

## 特殊圖書館에서의 KDC의 適用

一般圖書館을 爲한 分類表를 選定함에는 다음의 세가지 點을 檢討해야 한다.

1. 自館의 特性
2. 國內外의 評價와 그것의 實施現狀
3. 各圖書館의 共通性의 與否

韓國十進分類法을 選定할 때 (2)의 國內外의 評價와 그것의 實施現狀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아직도 出生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 評價가 없고 그 實施狀況도

말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分類表 自體의 構成만을 보고 于先 말해 보려한다. (3)의 共通性의 問題는 韓國十進分類法은 一般圖書館을 爲한 것이며 그런 意味에서는 共通性이 있다.

다음으로 (1)의 各館의 特性이란 것은 藏書內容에 依한 一般圖書館과 特殊圖書館의 差異·圖書館資料의 形態(一單行本인가 雜誌인가 또는 팜푸렐·리프렐等의 册子인가—·藏書量·年增加量·利用者의 層差·閱覽制度(—開架 또는 閉架 또는 援架—)·新設 또는 旣設의 與否를 말한다.

위의 말을 考慮하여 特殊圖書館에서 韓國十進分類法을 選定하고 適用할 때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 일을 檢討하여야 한다.

韓國十進分類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特殊圖書館과의 關係에 있어서 形式的인 面과 本質的面의 適否를 考慮하여야 한다.

形式에 있어 不適當한 것은 自己圖書館에서 알맞게 適用할 수 있는 것이다. 即 韓國十進分類法의 範圍內에서 解決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本質的으로는 不適當한 경우는 韓國十進分類法으로는 解決이 不可能할 것이니 自己圖書館에 맞는 特殊分類表를 選定 및 編纂하여야 한다.

그러나 特殊分類表의 編纂이 쉬운 것은 아니다.

(1) 形式上의 不適當한 경우 : 韓國十進分類法의 어느 部分의 細目展開가 不足하거나 어떤 主題가 빠졌거나 하는 것을 展開내지 挿入하여 使用할 수 있는 경우다. 그 細目의 展開와 補充은 各種資料를 硏究한 다음에 始作하여야 한다. 그 方法은 十進數로서 體系的으로 排列하는 方法 어떤 主題下에 必要한 名辭를 音順排列하는 方法 또는 現在의 細目을 訂正 하거나 追加를 要하는 경우다. 그러나 韓國十進分類法의 基本方針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例文省略)

(ㄴ) 本質的으로 KDC의 適用이 困難한 경우 : 이 경우의 例로서는 法律圖書館으로서 外國法의 資料가 多量으로 所藏되는 圖書館은 韓國十進分類法을 使用하는 것이 便利치 않다.

韓國十進分類法은 第1次區分이 各法으로 되었기 때문에 外國法은 一般法律과 特殊主題의 法이 完全히 分離된다. 이러한 形態로서는 外國法의 圖書가 많은 特殊圖書館에서는 不當하다.

韓國以外의 法律資料가 相當히 많은 圖書館은 法律은 于先 國家에 依해서 第1次區分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法律書에 對해서는 特殊分類表를 使用해야 한다.

### KDC의 特定 部門別 分類 可能 册數

KDC의 分類可能 總册數는 30萬卷에서 40萬卷으로 생각된다. 한例로서 社會科學部門만 分類 가능 책수를 大略推算해보면

| | |
|---|---|
| 經濟學書籍 | 13,500—18,000册 |
| 社會學書籍 | 6,000—8,000 |
| 政治學書籍 | 4,500—6,000 |
| 行政學書籍 | 3,000—4,000 |
| 法學書籍 | 18,900—25,200 |
| 敎育學書籍 | 4,500—6,000 |
| 風俗, 民俗學 | 3,000—4,000 |
| 國防, 軍事學 | 3,600—4,800 |
| 統計學 | 1,500—2,000 |
| | 78,000 |

特殊圖書館에서 이 部門을 適用할 경우 上記의 册數가 넘는때는 細目의 展開나 다른 方法을 取하여야 할것이다.

### 目 錄

目錄에 있어서는 어느 程度로 詳細히 하고 簡略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大槪의 圖書館의 경우 韓國目錄規則으로 通用된다고 생각한다.

古書가 많은 圖書館에서는 그 記述目錄의 細密한 點이 提示되어 있지 않으니 參考圖書가 必要할 것이다.

그리고 音樂硏究圖書館(音樂大) 또는 地理學科가 있는 圖書館에서는 그러한 部門의 圖書가 많을 때 韓國目錄規則에는 없으니 參考圖書가 必要하다. 地圖, 地帖 地球儀, 主體地圖等과 樂譜의 記述目錄은 美國國會圖書館記述目錄規則(Rules for dscriptive cataloging the library of congress) p. 67—97를 參考하기 바란다.